

“‘예술가의 길’ 확연히 보여주었던 축제의 시간”

호남예술제 70년

〈7〉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김25 화가

초2~고3 ‘통과의례’ 같은 출전
포래들과 경쟁 ‘추억’으로 남아
“100년 여정 꾸려 가리라 기대
좋은 예술인 육성 산실 돼주길”
6월22일까지 부산서 WAVE전

김25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매년 호남예술제에 출전했다. 어떤 해는 작문으로, 어떤 해는 미술로 나갔다. 특선이나 입선은 매년 받았는데 작문과 미술 부문에서 가장 큰 상은 동상이었다.

김 작가에게 학창시절 호남예술제는 반드시 출전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예술제였다.

“한바탕 신나는 축제였죠. 예술하는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 설렘도 있었고 물론 견제도 있었죠. 한자리에 모여 경쟁을 하다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가능이 됐어요.”

‘바다를 닦은’ 작가 김25. 김 작가에게는 ‘페인팅과 텍스트 조합으로 생동감을 발하는 작품’, ‘추상적 이미지와 언어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작업방식’ 등의 수사가 뒤따른다.

특히 바다 작품은 역동적인 파도의 움직임, 다채로운 시각적 언어와 맞물려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감성을 환기한다. 인간 심연을 파고드는 심미적 서사와 대자연의 추상적으로 구현한 작품은 현란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오늘의 김 작가가 있기까지 호남예술제는 중요한



‘Cast a spell’

단초였다. 작가로서 고유한 빛깔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어린 시절 참가했던 예술제에 대한 기억이 자리한다.

김 작가는 “호남예술제는 어린 저에게 나아갈 길을 확연히 보여주었던 축제의 시간이었다”며 “예술과 함께 예술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도 일러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꽤 근사한 일”이라며 “포래들과 벌였던 은근한 경쟁은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절 호남예술제는 주로 광주공원에서 열렸다. 당시 이젤을 펴고 그림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주위로 아이들이 몰려와 있곤 했다.

“그때 저는 한껏 거들먹거리며 새침한 표정으로

다’고 말을 했어요. ‘있을 보지 말고 덩어리를 보라’면서요. 순간 자존감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금새 그 말을 이해하고 3단계 명암으로 양감있는 나무를 그렸고 수상을 하게 됐죠.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김 작가는 올해 예술제가 7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년 긴 세월을 지치지 않고 지역의 어린 예술인들을 잘 키워 주신 덕에 많은 예술가들이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알려진 바로 김 작가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글도 수준급이다. 지난 1999년 글과 그림이 있는 에세이집 ‘내 안의 야생공원’ (신구문화사)을 펴내 주목을 받았다. 직접 쓴 글과 그린 그림은 읽는 맛, 보는 맛을 선사하는데 당시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김병중



김25 작가는 초2부터 고3까지 거의 매년 호남예술제를 참가할 만큼 예술제는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화가는 “그녀의 글은 빛과 색으로 가득하다. 캔버스에 색채를 적어 바르듯 현란하다. 그러면서도 고요함이 있다”며 “무지개빛 유채(油彩)로 어지러운가 하면 기습을 번지는 수묵(水墨)처럼 맑고 담담한 맛이 있다”고 평했다.

아마도 글은 그리듯이 쓰고, 그림은 글을 쓰는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감성과 아우라를 발하는지 모른다. ‘내 안의 야생공원’에 수록된 ‘컬러 COLOR’라는 글은 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처럼 생각된다.

“모든 자연이 대개 각자의 보색과 결합되어 더욱 아름답듯이 사람들 역시 주어진 각자의 보색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원리임에도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보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보색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의 잔상을 보기 때문이다. 겨울 안처럼 반대로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인 그 모습을 말이다.”

현재 김 작가는 바다를 모티브로 부산에서 전시

(6월 22일까지)를 진행 중이다. ‘바다의 날’ (5월 31일)을 기념해 스페이스 원지에서 ‘WAVE: Cast a spell’을 주제로 29일부터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파도를 넘다’, ‘주문을 외다’라는 의미처럼 바다를 신화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자못 기대가 된다.

“거짓말을 못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등급이 없는 ‘무등의 정신’이 좋다”는 김 작가. 그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회화 본연의 미적 질서에 기반한, 새롭고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미술을 꿈꾼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호남예술제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마음과 손길이 광주일보와 함께 100년 여정을 꾸려 가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광주일보가 가까이 좋은 예술인들의 산실이 돼주시리라 믿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예술 한마당

국립국악원, 국악의날 기념 공연
6월 5일 진도무형유산전수관

6월 5일, ‘제1회 국악의 날’을 맞아 진도에서 흥과 멋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이날 오후 4시 진도무형유산전수관 마당에서 기념공연 ‘굿이 Good이여!’를 무대에 올린다. 관람료 무료.

국악의 날은 지난해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세종대왕이 창작한 음악인 ‘여민락(與民樂)’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6월 5일을 기념일로 삼았다.

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의 뿌리를 조명하고, 국악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지역 전통예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무형유산보존회와 협력해 지역 전통예술인 중심의 무대를 구성했다.

첫 무대는 진도다시래기보존회의 진도다시래기 중 ‘거사놀이’다. 진도다시래기는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한 이를 기리며 벌이는 전통 상여놀이다. 상여꾼들이 노래와 춤, 익살스러운 재담을 곁들여 상제의 슬픔을 달래고 이웃과 함께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진도의 대표적인 민속 가무곡으로, 옛 공동체의 삶과 정서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굿이 Good이여!’



진도다시래기보존회가 선보이는 전통상여놀이 ‘진도다시래기’의 한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남도 무형문화재 남도잡가 보유자 강술대 명창이 ‘농부가’를 부르며 남도잡가 특유의 구성지고 흥겨운 가락을 들려준다. 강강술래보존회의 ‘강강술래’, 국악원 연주단의 ‘대동놀이’ 등도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한편 국악원은 국악의 날을 포함한 6월 국악주간

을 맞아 명상 프로그램, 굿음악축제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국악의 날이 국악의 전통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국악의 생동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 출신 예술인 위한 공연 작품 만든다

5월 말까지 ‘ACC×광주 협력공연 연출·작품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지역 출신 예술인을 위한 공연 작품을 만든다.

ACC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이 함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2025 ACC×광주 협력공연 연출·작품 공모’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디지털 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아날로그 감성 위주로 극예술 본연을 추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공연 예술계의 자생력 제고 및 문체부의 국립예술단 지역 분산 정책과 연계한 지역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연고 또는 지역 출신 예술인으로 최근 3년 내 300석 이상 공연 연출 경력이 있는 개인이나 팀이 대상이며 ‘생활양식’을 모티브로 아시아적 가치를 담은 작품이면 된다.

장르는 연극을 비롯해 무용, 음악 등 제한이 없으며 발표는 오는 9월 쇼케이스 피칭 심사 등을 거쳐 2팀을 선발한다. 대본 및 연출 개발, 공동 창작 워크숍 등을 토대로 공연은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제작진과 출연진은 올해 구성된 ‘ACC 시즌 예술인’ 외에도 지역 예술인, 외부 아티스트



‘ACC 시즌 예술인’ 레퍼토리 분야 김은숙 배우. 〈ACC 제공〉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쇼케이스 피칭 기회를 얻는 4팀에게 각 1000만원 이내의 개발비를, 최종 선정 2팀에게는 1500만원의 대본 개발비를 지급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ACC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ACC는 올해부터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공연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 예술인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